

茶山 청림·애민사상 오롯이... 전국 지자체 교육 필수코스



▲다산초당.

‘뿌리의 길’을 따라 강진 다산초당으로 오르는 길은 다산의 삶을 기억하는 양 뿌리마다 얽힘이 교차한다. 다산초당은 다산이 귀양의 설움을 딛고 안정을 되찾아 후진 양성과 저술 활동에 몰두한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다산학당으로 일컬어지는 18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5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완성한 곳도 여기다. 다산은 목민심서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에 이미 복지제도를 제시했다. 올바른 세상을 위해 당시 관료의 도덕, 행동강령을 매섭게 짚어내기도 했다.

다산초당은 조선시대 유배객의 쓸쓸한 거처가 아닌 조선시대 학술사에서 가장 활기찬 학문연구의 현장이자 공직자를 위한 윤리 교과서의 탄생지였다. 강진군은 이 같은 다산의 청림과 애민사상(愛民思想)을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승화시켰고, 이제는 강원도에서 서울, 제주도까지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의 필수 교육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조선 후기 실학의 거성인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강진의 인연, 그리고 다산교육의 현장을 짚어봤다.

**공직 윤리 교과서 ‘목민심서’ 탄생한 곳
郡, 다산초당·사의재 등 교육프로그램 연계
최근 5년간 중앙 정부 등 1만5천여명 수료**



강진 다산교육관 전경. 강진 도암면 다산수련원길에 있는 다산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생활관 45실(2인·100명)과 교육동 2동(240석), 소강당(60석), 식당(100석) 등을 갖추고 있다.



강진 다산공직관 교육 참가자들이 다산초당으로 향하는 ‘뿌리의 길’을 오르고 있다.

〈강진군 제공〉

◇“말은 적게 하고 움직이는 무겁게 하라”=다산초당에 오기 전 다산은 오갈 곳 마저 없는 딱한 처지였다.

이를 안 강진읍내 동문 밖 주막 할머니가 방 하나를 내줬다. 다산은 이곳을 ‘사의재’라 이름 짓고 스스로를 다지며 동네 아이들을 가르쳤다. 사의재는 ‘네 가지 마땅한 것을 행하는 집’이다. ‘생각은 담백하게, 외모는 장엄하게, 말은 적게, 움직이는 무겁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의재는 현재 강진군이 주막으로 부활시켜 운영중이다.

강진군이 전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다산교육 프로그램도 이 같은 네 가지의 마땅한 자세를 기본으로 한다.

◇“백성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아야...”=다산의 시 ‘애절양(哀絶腸)’은 지나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조선시대 군역 폐해로 죽은 사람과 갓난아기까지 군역에 올리고 군포(軍布)를 물게 하자,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자신의 생식기를 자른 기막힌 현실을 노래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몸소 새겨야 할 세무공직자의 정신과 자세에 대해 깨우침을 준다. 윤리적 행동강령을 강조하는 지침서로 꼽힌다. ‘절양(絶腸)’은 남성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다.

다산의 청림사상은 제자들에게도 이어진다. 젊은 시절 다산이 가장 아낀 제자는 황상으로, 그가 은거했던 일속산방은 청림

실천의 장이었다.

황상은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는 다산 시풍을 계승하며 시에서나 생활에서나 다산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좁쌀 한 톨처럼 작은 산속의 집’이란 의미에서 보통 공직자의 한결같은과 도덕적 청렴성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다.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배우겠다” 전국 공직자들 강진으로=강진은 말 그대로 지역 자체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림과 애민정신을 배울 수 있는 산교육장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을 포함한 제주도, 울릉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중앙정부 기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다산정신을 배우기 위해 강진으로 몰려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처럼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발하게 교육과정을 전개하는 곳은 강진이 유일하다.

강진군은 다산교육프로그램으로 다산공직관 청림교육과 다산체험프로그램, 공무원 감성 푸소 체험 등 세 가지 유형의 실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다산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다산초당~백련사 동백숲을 오가는 ‘사의재의 길’ 걷기, 가족에게 편지쓰기, 우리가락 배우기, 다도체험, 유배 상황극, 매조도 그리기 등을 통해 다산을 체험토록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다산공직관 청림교육과 다산 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공직자는 10월 말 기준 1만5625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15%(2308명), 부산·경남 27%(4215명), 대구· 경북 17%(2722명), 강원과 제주가 각각 2%(372명, 294명), 광주·전남이 27%(4103명) 등이다.

◇중앙정부도 반한 강진 청림교육=강진군은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정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의 공직가치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인사혁신처장과 강진원 강진군수가 맺은 MOU는 공무원 공직가치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 3.0협업을 통해 중앙-지방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강진군은 인사혁신처와의 협약에 앞서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대구교육연수원, 충남교육연수원, 전북교육연수원 등 주요 기관과 협약을 맺는 등 교육교류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은 다산과 같은 정신적·무형적 가치는 물론, 청림과 애민 사상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이라며 “다산공직관 청림교육을 비롯한 다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이에 따른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다산유적지 테마학습 코스

사의재(四宜齋·1801~1805년)
공직자의 예절교육의 장

-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시 처음 거처한 곳. 네 가지 마땅한 것을 행하는 집. (생각은 담백하게·외모는 장엄하게·말은 적게·움직임은 무겁게)

보은산방(寶隱山房·1805~1808년)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교육의 장

-다산의 아들 학연이 강진에 내려왔을 때와 공부를 가르친 곳.
-다산의 자녀교육과 가족사랑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힐링공간.

다산초당(茶山草堂·1808~1818년)
학습·강학·교육·저술활동의 장

-18명의 제자 양성과 600여권의 저술활동을 한 목민사상의 태동지.
-복지제도 강조 및 관료들의 도덕적 행동강령인 목민심서를 저술하여 공직자 윤리적 교과서 완성.

백련사(白蓮寺)
다도체험·정신수양교육의 장

-다산이 초의에게 유학을 가르치고 학문토론, 다도·제다법을 가르친 소통의 공간.

백운동(白雲洞) 정원
호연지기 함양교육의 장

-다산이 월출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 자주 들러 묵었던 장소.
-자연경관 속에서 정신적 수양을 되새김하는 힐링 체험교육의 코스.

일속산방(一粟山房)
청림실천 교육의 장

-다산의 제자 황상이 다산의 도덕적 가르침을 실천하며 은거한 산 속의 집.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 산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광 천 366-8375	
군산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광 222-9440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남 부 652-0175	
		광 동 264-2012	
		명 동 222-9054	
		동 부 225-6001	
		문 흥 267-4748	
		백 운 673-4698	
		봉 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 하 675-6805	
		신 안 512-1732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동 522-7752	
		우 산 512-8116	
		월 곡 961-2339	
		중 앙 222-1896	
		중 흥 224-6604	
		진 원 673-1600	
		침 단 973-2900	
		중 장 224-8212	
		치 평 376-6511	
		풍 암 682-8112	
		하 남 959-1500	
		화 정 375-98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